

해인사판 고려대장경 화엄경 팔십변상도의 디지털시각화 및
전자불전 편찬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 연구

-실차난타 역본 입법계품을 중심으로-

고려대장경

• 고려 1233~1248년 수기(守其)법사가 그 판각의 총 책임을 맡고 간행한 목판 불전이다.

• 삼장(三藏)의 범위를 넘어 훨씬 다양한 대승 경전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경전의 편찬 및 유통의 특성상 재편성(restruct) 성격이 특징적이다.

Example 1. 대장경의 편집을 위해 경전의 판본을 수집하고 교감작업 진행한 과정에 대한 기록은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을 남겨 놓고 있어 현재 거의 전래되지 않는 북송 판본과 거란본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대장경이 고려대장경이다. 그리고 다른 대장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법원주림(法苑珠林)』,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속일체경음의(續一切經音義)』, 『내전수함음소(內典隨函音疏)』 등은 고려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다.

• 고려대장경이체자전(高麗大藏經異體字典)』에 따르면 고려대장경은 그 이체자 폰트를 정리했을 때 그 수가 7만 자가 넘었고, 현재 정리되어 사용되는 글자 수가 3만 자에 이른다고 한다.

Example 2. 고려대장경 영인본(동국역경원, 1976)을 저본으로 삼아 그 경판에 있는 글자 중 정자(正字)에서 나온 이체자로 판별되는 29,478자를 정리하였는데 해당 이체자가 파생된 정자는 7,486종이며 하나의 정자(鑿)에 무려 65자의 이체자가 파생된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는 고려장을 구성하는 경전의 구성 순서도 원형 그대로를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해당 DB의 분류체계는 고려대장경 편찬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교감작업팀을 비롯한 총괄자 수기(守其), 또는 고려대장경」, 전산화 구현에 참여하는 여러 학자에 의한 '일련번호 수여'로 설계되었다.

그 예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는 대장경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경번호순'으로 K.0001에서 K.1514까지 제공하거나 '경명순'으로 가나순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 이는 초조대장경의 함(函)보관과 배열 형태를 계승한 고려대장경이 천자문의 자에 의거하여 분류된 639가지의 함에 경전을 차곡차곡 나뉘어 배열된 형태를 띄고 있다.

• 이 639가지의 함을 1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기준은 특정 시대에 편찬된 불전목록이 담긴 경이나 동일한 번역자의 불전을 모아 담긴 함 등 그 구성 내용에 있다.

• 1,538종의 경전을 비롯하여 본래 해인사에 수장되었던 경전을 보판 목록을 작성하여 팔만대장경의 끝에 덧붙이고, 그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결과 총 K.1514종으로 정리되어 현재 디지털 장경 형태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제공되고 있다.

•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이나 CBETA(中華電子佛典協會)이 종파(宗派)별 혹은 특정 경전에 귀속되는 속장경(續藏經)별 분류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경전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고려대장경은 경전의 일련번호나 가나순, 6종의 대분류에 의한 약 90종의 세부 주제분류에 의해 경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체 1514종의 경전 중 747종만이 주제별 분류로 서비스된다.

• 한국 불교의 통불교적 성격을 살려 고려대장경의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재편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화엄경

-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원어는 티베트본대방광불화엄경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마하바이쁠리아붓다아바탕싸까쑤뜨라(Mahāvaiṣṭvābuddhāvataṃsaka-sūtra)'이다. 그것을 해석하자면, '광대하고 심오한 의미를 설하는 깨달은 님에 대한 장엄의 경'이 되며, 『화엄경』은 그 줄임말이다.
- 『화엄경』은 반야경전류의 공사상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내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묘유(妙有)로써 표현한 가르침이다. 이 경전이 현재의 방대한 형태로 완성된 것은 그 이전에 유통되던 유사한 형태의 독립된 경전들을 집대성하고 증보하였기 때문이다.
- 이 가운데 깨달음을 향한 님의 수행단계의 지평을 설한 『십지경(十地經)』과 선재동자의 구법여행을 주제로 한 『부사의 해탈경(不思議解脫經)』이 가장 먼저 성립되었다. 『십지경』이 확대되어 화엄경에 성립하면서 화엄경 안에 『화엄경십지품(華嚴經十地品: Dasabhūmika)』으로 남게 되었고, 『불가사의 해탈경』은 화엄경 뒷부분에 추가되어 『화엄경입법계품(華嚴經入法界品: Gandavyūha)』이 되었다.
- 본 연구는 당 실차난타(實叉難陀, Śikṣānanda) 역 『대방광불화엄경』에 해당하는 화엄경의 '십지품'과 '입법계품'을 주된 텍스트로 활용하여, '화엄십지'의 수행과 그 실천인 '입법계품'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기반 데이터베이스(Semantic Database)를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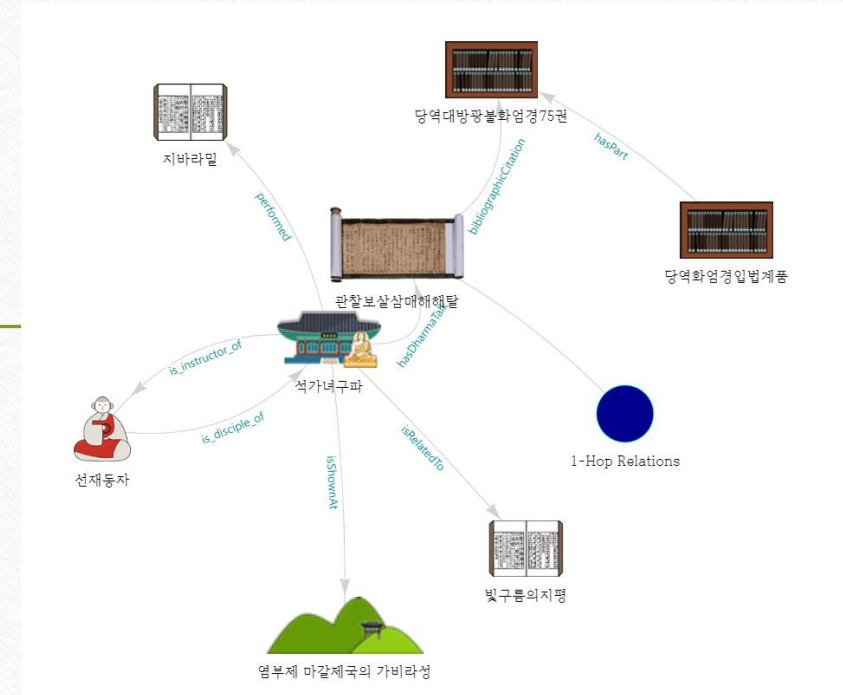
십지품

- 『십지경(十地經)』(Daśabhūmikā)은 『화엄경』의 모태가 되는 경전이다.
- 십지(十地)는 크게 본생십지, 본업십지, 반야십지, 화엄십지, 유가십지 총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 이 중 화엄십지는 큰기쁨의 지평(歡喜地), 때여임의 지평(離垢地), 새벽빛의 지평(發光地), 드높음의 지평(難勝地), 꿩뚫음의 지평(現前地), 온거님의 지평(遠行地), 아니밀의 지평(不動地), 한슬기의 지평(善慧地), 빛구름의 지평(法雲地) 총 10가지의 수행의 지평으로 구성된다.
- 계행, 선정, 지혜, 공덕의 토대이자, 모든 부처님의 가장 성스러운 길(大正9: 544b)로서 그 지평 자체는 생사가 없고 공(空)하여 모든 고통이 부수어지고 허공과 같아지고 삼세의 시간을 초월하고, 분별적 사유를 여윈 일체지자의 앎의 지평이다. 또한 모든 부처님들이 실천행을 하는 지평으로 모든 분별적 사유를 여윈 적멸의 법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평은 보살의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열리는 지평이다.
- 처음 깨닫고자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의 깨달음을 향한 존재의 의식의 지평이 바로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깨달음 지평을 함축한다

1. 화엄경 입법계품 메타아카이브 구현

-
- 본 연구는 당 실차난타(實叉難陀, Siksānanda) 역 『대방광불화엄경』에 해당하는 화엄경의 『십지품』과 『입법계품』을 주된 텍스트로 활용하여, 『화엄십지』의 수행과 그 실천인 『입법계품』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기반 데이터베이스(Semantic Database)를 설계하고, ‘입법계품’의 구법자 선재동자를 둘러싼 핵심적인 문학 전개 요소들을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화엄경 입법계품 메타아카이브』를 구현하였다.

Class Name	국문	설명
BibliographicResource	문헌	실차난타(實叉難陀)역본 『화엄경 입법계품』을 구성하는 문헌 및 법문을 포함한다.
Text	법문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지식이 <u>구법자 선재동자에게</u> 전한 법문을 포함한다.
Place	장소	『화엄경 입법계품』에 언급되는 가상의 공간, 신화적 공간을 포함한다.
Actor	행위자	『화엄경 입법계품』에 관련된 행위자. 설법 장소에 있는 대중, 설법자, 구법자 등을 가리킨다. Subclass: 보살, 부처, 사부대중, 선지식, 성문연각, 제자 Subclass2: 사부대중(동자, 동녀, 비구, 우바새, 우바이)
Action	행위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지식이 법문을 설법하고 꿈과 같은 이적(異蹟)을 보이는 모든 행위, 십바라밀(十波羅蜜)을 가리킨다.
Moral	수행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지식이 설법하는 법문과 그 실천하는 행위를 기원하는 『화엄경 십지품』의 화엄십지를 비롯하여 십주, 십행, 십회향을 가리킨다.
Digital Illustration	디지털변상도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화엄경 입법계품』 변상도 자료를 VR로 구현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가리킨다.



클래스	분류	총량
Action	행위	10
Actor	행위자	338
BibliographicResource	문헌	22
Moral	수행	40
Place	장소	77
Text	법문	172
DigitalIllustration		2
합계		661

주소: http://dh.aks.ac.kr/~sandbox/cgi-bin/Story01.py?db=s_sooheon&project=g&key=석가녀구파

2. 화엄경 입법계품 전자불전 편찬을 위한 데이터 모델 구현

- 본 연구는 전자불전 편찬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 연구로 『십지품』과 『입법계품』을 자료로 활용하여 『입법계품 등장인물 사전』과 『입법계품 불교 용어 사전』을 개발하였다.
- 그 선행 모델로 미디어위키를 기반으로 정토종계 전자불전사전을 개발한 신찬정토종대사전(新纂淨土宗大辭典)을 참고했으며, 사전의 구성요소는 대만의 불학규범자료고와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教大辭林],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을 참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해외에서 전자불전을 편찬한 사례를 조사하고 본 연구에 활용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불교학자가 디지털인문학 연구와 불교학을 융합한 연구사례를 ‘Ⅲ. 불교와 디지털인문학’에서 논했다.

목차

[숨기기]

1 Note

- 1.1 보장여래(寶藏如來)가 과거의 보현보살에게 수기를 주다
- 1.2 입법계품(入法界品):보현은 법계, 문수는 들어가는(入) 반야지혜
- 1.3 보현보살과 화엄경의 관계, 그리고 보현행원품

2 Same as

- 3 불전에서 묘사되는 용모
- 4 콘텐츠
- 5 관련 용어
- 6 문헌 출처

Note

[연기]

선재등자(善財童子)가 **보현보살**의 증중무진한 세계에서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고 끝내 **보현보살**의 행원을 얻도록 노력했다.

『만선동귀집』권하(대정장48, p.987b19)에 “바라밀이라는 지혜의 노를 갖추고, 대반야라는 자비의 배를 타고, 삼유(三有)라는 고통의 나무터를 넘어서, 보현이라는 서원의 바다에 들어가고, 법계의 태풍을 건너서 열반의 큰 성에 들어간다. 徧波羅蜜之智轉麗大般若之慈航越三有之苦津 入普賢之願海源法界之觀 置涅槃之大城”, 『화엄집』관상분에 “하나의 진실한 도를 듣고 보현의 원해에 들어간다. 聞一實道 天普賢之願海, 80권본 『화엄경』 권1(대정장10, p.2b10)에 “항상 얻은 바의 보현의 원해로 모든 증상으로 하여금 지혜의 몸을 구축하게 한다” 또한 광대한 행원을 세우고 실천하기 때문에 대행보현보살(大行普賢菩薩)이라고 한다.^[1]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금강장 보리도량(金剛藏菩提場), 서다림 금고독원(給孤獨園)에 머무른 것으로 묘사되나, 보현보살은 항상 동방의 보위덕상왕부처님의 저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신화엄경론』에서 밝히고 있다. 『신화엄경론』 권4(대정장36, p.745a28)에 “보현보살이 항상 동방의 보위덕상왕부처님의 저소에 머무는 것은 만행(萬行)을 실천하는 것을 보배로 삼고 이 행으로 말미암아 그 위덕이 완성된다는 뜻을 밝히기 때문이다. 행을 갖추면 법보로 된 몸이 자재하고, 위엄있는 덕을 갖추고 두려움이 없이 자재한 왕이 된다. 행을 갖추지 못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남아 있어서, 실령 높은 자리에 머문다고 해도 왕이 될 수는 없으니, 두려움의 대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와 함께 모두 동방에 머무는 것은 법신과 지신, 이와 사, 제와 용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이고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普賢菩薩 常居東方 寶威德上王佛所者 明萬行為寶以此行故 成其威德若具行者以法寶身自在也威德無畏自在為若不具行者皆有所畏設居高位不得為王為有所畏故與文殊師利同在東方者為法身智身理事體用本自一故 本無二

http://avatamsakasutra.com/wiki/index.php/분류:입법계품_등장인물_사전

http://avatamsakasutra.com/wiki/index.php/분류:입법계품_불교_용어사전

인물 프로필



絹本著色普賢菩薩像, 奈良國立博物館

유형 인물

국문 이름 보현보살

영어 이름 samantabhadra

한문 이름 普賢菩薩

별칭

출현 경전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八十

인물 지식 지식관계망

관계망

제자 선재등자(善財童子)

설법 법문

용모

Gandavyuha(入法界品.입법계품)

Actor Information

o actor: SAMANTABHADRA(보현보살)

o actorNote: 선재등자(善財童子)가 보현보살의 증중무진한 세계에서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고 끝내 보현보살의 행원을 얻도록 노력했다. 『만선동귀집』권하(대정장48, p.987b19)에 “바라밀이라는 지혜의 노를 갖추고, 대반야라는 자비의 배를 타고, 삼유(三有)라는 고통의 나무터를 넘어서, 보현이라는 서원의 바다에 들어가고, 법계의 태풍을 건너서 열반의 큰 성에 들어간다. 徧波羅蜜之智轉麗大般若之慈航越三有之苦津 入普賢之願海源法界之觀 置涅槃之大城”, 『화엄집』관상분에 “하나의 진실한 도를 듣고 보현의 원해에 들어간다. 聞一實道 天普賢之願海, 80권본 『화엄경』 권1(대정장10, p.2b10)에 “항상 얻은 바의 보현의 원해로 모든 증상으로 하여금 지혜의 몸을 구축하게 한다” 또한 광대한 행원을 세우고 실천하기 때문에 대행보현보살(大行普賢菩薩)이라고 한다.^[1]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금강장 보리도량(金剛藏菩提場), 서다림 금고독원(給孤獨園)에 머무른 것으로 묘사되나, 보현보살은 항상 동방의 보위덕상왕부처님의 저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신화엄경론』에서 밝히고 있다. 『신화엄경론』 권4(대정장36, p.745a28)에 “보현보살이 항상 동방의 보위덕상왕부처님의 저소에 머무는 것은 만행(萬行)을 실천하는 것을 보배로 삼고 이 행으로 말미암아 그 위덕이 완성된다는 뜻을 밝히기 때문이다. 행을 갖추면 법보로 된 몸이 자재하고, 위엄있는 덕을 갖추고 두려움이 없이 자재한 왕이 된다. 행을 갖추지 못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남아 있어서, 실령 높은 자리에 머문다고 해도 왕이 될 수는 없으니, 두려움의 대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와 함께 모두 동방에 머무는 것은 법신과 지신, 이와 사, 제와 용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이고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普賢菩薩 常居東方 寶威德上王佛所者 明萬行為寶以此行故其威德若具行者以法寶身自在也威德無畏自在為若不具行者皆有所畏設居高位不得為王為有所畏故與文殊師利同在東方者為法身智身理事體用本自一故 本無二故”라고 하였다.^[2]

o place: 서다림 금고독원(給孤獨園), 금강장 보리도량(金剛藏菩提場)

o sameAs: 『佛學規範資料人名規範檢索 https://authority.dila.edu.tw/person/佛敎四大菩薩 (觀音、文殊、地藏、普賢) 之一、與文殊菩薩為釋迦如來之脅侍、即文殊藏獅子侍如來之左側、普賢象白象侍右側、以此菩薩之身相及功德遍一切處、經一妙善、故稱普賢、又普賢十大願為一切菩薩行願之標榜、故亦稱普賢之願海、以此菩薩之大寶大陸、一般稱為大行普賢菩薩、 (佛傳：4237.1；佛光：5002；g049p0004, https://www.wikidata.org/wiki/Q868306

o reference: 大周新譯大方廣佛華嚴入法界品-寶叉難陀 61권, 80권

TEXT

o keyword: 사자빈시삼매(師子頻呻三昧)

o sanskritText: [Digital Sanskrit Buddhist Canon http://www.dsbccproject.org/canon-text/content/40/309] 2 samantabhadrah| atha khalu samantabhadro bodhisattva mahāsattvaḥ sarvāvatāntaṃ bodhisattvaḥ saṃvānāṃ vyavakalpya bhūyasyā mātrāya vibhajan vistārayān deśāyan uttānīkuran saṃprakāśāyan avabhāṣāyan prabhāṣāyan upadīṣan dharmadhātusattva āśādhātusattva matāyā tryaśdvāsamatāyā dharmadhātusamatāyā sattvadhātusamatāyā sarvalokadhātusamatāyā sarvakarmavāśāsamatāyā sattvāsāyāsamatāyā sattvādāhīnikūṭtisamatāyā dharmapratibhāśāsamatāyā sattvapariṣkākaśāsamatāyā sarvajagadindriyāsamatāyā ca, evaṃ siphavāṃr̥bhīṭhan tathāgatasmādhīm caśāṃ bodhisattvānāṃ saṃprakāśāyī sma daśābhirnīrdeśapadāḥ| katamairdāśābhīḥ?

목차

[숨기기]

1 Note

- 1.1 普照全書(화엄론절요), 제10지는 법운지(빛구름의 지평)인데, 왜 이름이 법운지인가?
- 1.2 빛구름의 지평(法雲地)
- 2 관련 용어
- 3 문헌 출처

Note

[연기]

普照全書《화엄론절요》, 제10지는 법운지(빛구름의 지평)인데, 왜 이름이 법운지인가? ^[연기]

이 보살이 법왕의 위(位)에 오르니 지혜가 완만하고 왕이 두려움이 대저비의 구름으로, 모든 생사의 바다에 널리 법운(法雨)을 내리서 일체 중생의 마음 밭에 푸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에 보리의 싹을 발하게 하여 그것을 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름 이하에 법운지라 한다. 초발심으로부터 이 지혜의 지(地)에 들어가 부처 집안 에 태어나서 승전 수행으로 이 지(地)에 이르니 대저비 원력의 공(功)이 증강되고 왕이 완만하기 때문에 항상 법운(法雨)을 내리는 것이다. 이 지(地)는 지혜바라밀을 닦는 것을 주(主)로 삼고 나머지 이름은 약(藥)이 된다. 또 이 지(地)가 삼계 안에서 어떤 법을 얻는가? 이 지(地)가 사방 삼계에서 법계 보광명의 대지례를 얻어서 대저 비가 은(團)에 맑게 완만하기 때문에 대법운(大法雲)으로써 널리 지혜의 비를 내리서 부처의 직분을 받는 문(門)을 밝히는 것이다. 가령 선재등자가 문간 구아래의 강 등이라는 것은 지혜가 능히 항상 허공계와 동등하고 일체 중생의 8만 4천 보리와 모든 근속(傾軋)과 함께 하면서 법으로 대저하여 해탈함을 밝힌 것이다.^[1]

빛구름의 지평(法雲地) ^[연기]

빛구름의 지평(法雲地): 원역에서 법운지(法雲地), 법우지(法雨地), 관정지(觀頂地) 등으로 번역한다. 용수는 ‘시방의 무량세계에 임시에 법운을 내려 곁하를 그치게 하고 널리 비를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운지이다.’라고 한다. 이 지평에서 뜻상은 지옥, 아귀의 모습을 취하고 무지로부터 모든 모든 괴로움을 받는데 비해, 보살은 법신을 완성하여 몸이 희공과 같으며, 지혜가 큰 구름과 같아지고 신체의 각 부분에서 무수한 광명을 발하여 바로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인도에서 재물이 죽어갈 때 어서 대대의 물을 관정받는 것처럼, 보살의 최후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평으로 관정을 받고, 삼애 또한 초월의 길(華渡羅騰)을 성취한다. 그리하여 무한 모습으로 모든 부처님의 활동이 드러나고 모든 부처님의 비밀의 진리가 아려지는 부처님의 세계가 현상된다.^[2]

관련 용어 ^[연기]

특정 내용의 글자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를 하이퍼링크화하여 나열합니다

문헌 출처 ^[연기]

1. † 普照全書《화엄론절요》, 제10지는 법운지(빛구름의 지평)인데, 왜 이름이 법운지인가?, 982-986, 2005
2. † 진채성, 『삼지경-오리지널화엄경』, 한국불학리성협회, 2013, 870-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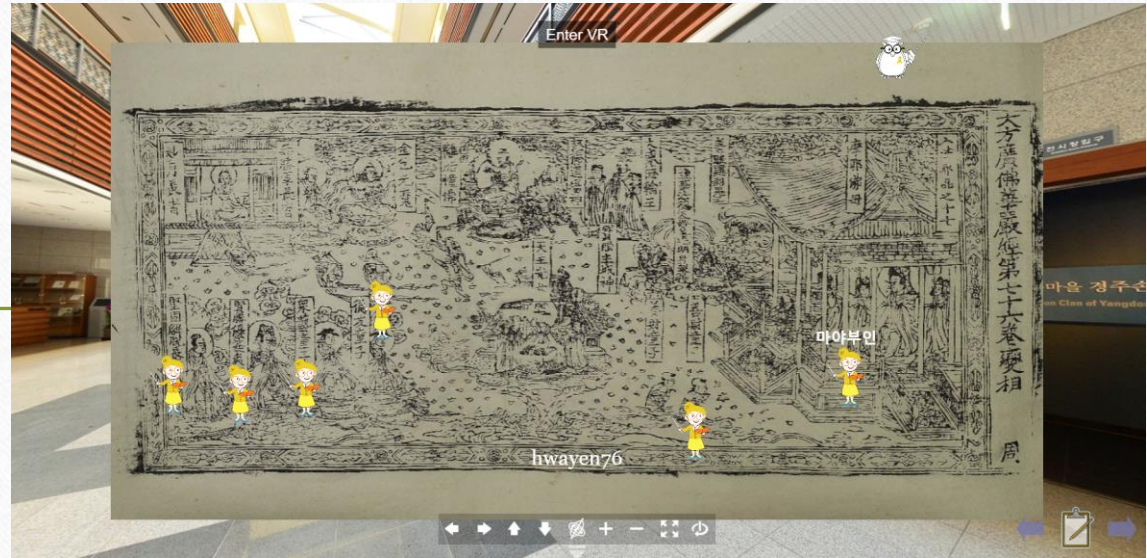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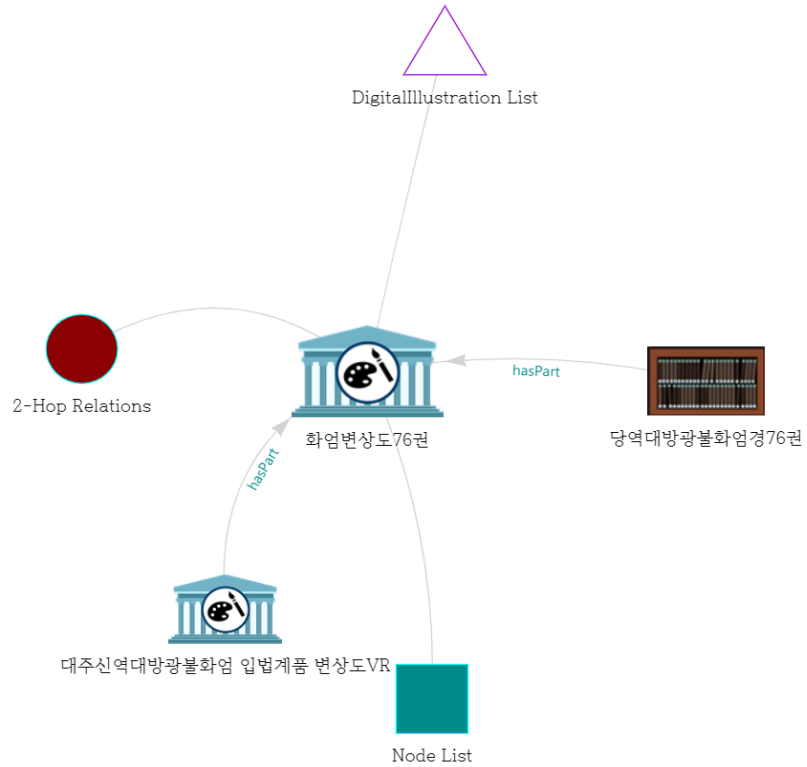
분류: 입법계품 참고용어사전

2. 화엄경 입법계품 전자불전 편찬을 위한 데이터 모델 구현

전자불전모델	해당클래스	표제어
입법계품 등장인물 사전	행위자(Actor)	558
입법계품 불교 용어사전	법문(Text), 장소(Place), 행위(Action), 수행(Moral)	110
총		668

3. 화엄변상도 시각화 아카이브

- 본 연구는 고려대장경의 80화엄 변상도를 활용하여, 입법계품의 특정 권(卷)의 인물정보와 변상도에 출현하는 인물을 연계하는 『大周新譯大方廣佛華嚴-入法界品변상도VR』을 개발했다.
- 파노라마 공간에서 특정 보살을 클릭할 시 입법계품 전자불전 내에 수록된 보살의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이는 『화엄경 입법계품 메타아카이브』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클래스 Digital Illustration의 개체로서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화된다.



http://dh.aks.ac.kr/~sandbox/cgi-bin/Story01.py?db=s_sooheon&project=g&key=화엄변상도76권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본 연구에서는 200,758자의 장편소설 한 권 분량인 『입법계품』을 구성하고 있는 로우 데이터들을 온톨로지로 설계함으로써 각 요소를 개체화하고, 불전의 요소를 훨씬 시각적·의미적으로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 『입법계품』의 불전문학의 구조와 수행의 지평, 수행의 실천이라는 맥락을 『화엄경 입법계품 메타아카이브』구현을 통해 일견에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추후 『화엄경』과 같은 방대한 플레인 텍스트를 담고 있는 경전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그 요소들이 관계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나 특정 경전에 담긴 불교사상적 맥락을 이해하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차기 연구: ‘신(信), 해(解), 행(行), 증(證)’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개발

‘본 연구의 『화엄경 입법계품 메타아카이브』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로 개발하였는데, 이 ‘수행’을 ‘신,해,행,증’으로 분류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Hierarchical database model)과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불전을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계층형 모델을 통해 대장경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교학과 수행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차기에 진행하고자 한다.

- 신해행증(信解行證) 4가지 요소 중 불전에서 특히 강조된 요소를 고려하여 각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신(信), 해(解), 행(行), 증(證)’ 네 요소에 소속된 경전들을 일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Hierarchical database model)을 개발한다면, CBETA(中華電子佛典協會)나 SAT(大正新脩大藏經)에서 제공하는 종파(宗派)별 혹은 특정 경전에 귀속되는 속장경(續藏經)별 분류에 의한 경전 정보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교학’과 ‘수행’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신해행증(信解行證) 분류법’을 통해 한국 불교의 고유한 성격인 통불교사상(通佛敎思想)을 살려 대장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차기 연구: ‘신(信), 해(解), 행(行), 증(證)’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개발

단, ‘신(信), 해(解), 행(行), 증(證)’ 의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고려대장경 목록 중 그 설계 대상으로 삼는 경전이 ‘신(信), 해(解), 행(行), 증(證)’ 으로 분류된 문헌적 근거가 있는 경전에 한(限)한다.

- 불전은 상당수 부처의 출현과 함께 개시오입으로 인한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과정을 밝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령 신해행증(信解行證) 사분과(四分科)로 경의 대의를 분류한 청량징관의 『화엄소』가 있고, 이 『화엄소』의 신해행증 분류를 저본으로 화엄경의 장절을 분류하여 주석한 진언의 『화엄품목문목관절도(華嚴品目問目貫節圖)』가 있다. 이와 같이 고려대장경 중 화엄경을 비롯한 여타 신해행증 분류를 갖는 경전들을 대상으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